



'공부하는 대학총장' 제 1기 대학총장 아카데미 전반부를 마감하며...

김수경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부 연구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하 '대교협')는 10월9일~12월18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대학 경영혁신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 1기 대학총장 아카데미 전반부를 마쳤다.

대학총장 아카데미는 국내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공부하는 대학 총장'의 슬로건 하에 29명의 대학 총장들이 모여 대학교육 쟁점 사항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대학총장 아카데미는 세계 고등교육 동향에 관한 최신 정보를 획득하고, 대학총장들 간의 정보 공유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획되었다.

입회식에서 대교협 이배용 회장은 인사말에서 “대학 혁신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처하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우리 대학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열어가는 핵심 과제를 맡고 있다”고 총장들의 변화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대학이 안고 있는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자 마련된 대학 총장 아카데미가 진행되는 동안,

총장들은 대학교육의 미래 비전을 정립하고, 21세기가 요구하는 대학 CEO상을 구현하며, 총장들 간의 소통과 친교, 화합의 귀한 시간을 갖게 되리라는 기대를 품고 아카데미가 시작되었다.

10월 9일 1회차 대학 총장 아카데미에서는 이어령 중앙일보 고문 초청 <디지털 시대 학습 환경: 유비쿼터스와 아날로그> 주제 특강과 참여 총장들의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날 이고문의 강연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익숙한 학생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대학은 유비쿼터스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역설하였다. 이에 대학 총장이 디지털 시대 학습 환경에 맞는 유비쿼터스 환경에 아날로그적 방식이 접목한 노력을 할 때, 대학 총장이 학생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며, 학생들 또한 대학에 대한 애정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하였다. 대학 총장은 디지털 대학 문화를 리드해가고 새로운 대학 문화를 창출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 날은 아카데미 시작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고문의 저서 증정이 있었다.

10월 23일 2회차 대학 총장 아카데미는 이상주 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모시고 <총장은 누구인가? 대학 경영과 리더십>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날 강연에서 이상주 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0년의 대학총장 경력을 토대로 대학 총장의 지도적 역할을 6가지로 제시하였다. 총장은 대학이 추구하는 기본 가치의 수호자, 대학 공동체의 합의 조성자, 대학의 분쟁 조정자, 대학개혁을 위한 변화 촉진자, 대학관리의 최고 책임자, 지역사회의 지성적 지도자로서 정의되며, 대학 환경의 변화 속에서 다양한 총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3회차 대학 총장 아카데미는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부부동반의 1박2일 워크숍으로 진행되었다. 워크숍 시작하기에 앞서, 여주 영릉(세종대왕릉)과 신록사에 들러 인성교육의 현장 탐방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워크숍에서는 4개의 대학 현안을 두고 대학총장들의 심도 있는 토론 방식이 진행되었다. 첫째 날 이배용 대교협 회장의 <교육과 사람: 교육, 연구 그리고 사회봉사> 발표와 이남교 경일대 총장의 <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기능과 방향> 두 번째 발표가 있었고, 이어서 총장 간의 진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둘째 날 발표와 토론의 장은

이남식 전주대 총장의 <대학평가의 문제와 개선방향> 주제발표가 있었고, 장시간의 대학평가에 관한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다. 마지막 주제 <대학 운영 체제 : 경영, 학생선발>은 오찬과 함께 자유로운 논의로 진행되었다.

4회차는 11월20일~21일 양일 간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있었던 대교협 주최 세계 총장포럼에 공동 참가로 진행되었다. 첫째 날 포럼은 <Strengthening Universities' Educational Competitiveness>을 주제로 10:00~20:00까지 진행되었으며, 둘째 날은 14:00~16:30 2시간 30분 동안의 OECD 대학교육 학업성취도 평가 간담회를 가졌다.

12월 4일 5회차 대학총장 아카데미에서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모시고 <대학이 변해야 한다>는 주제로 특강과 이어서 장관과 총장들과의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이날 강연에서는 "대학이 제일 뒤쳐지는 환경에 있으며, 가능한 대학 쪽에 재정지원을 늘려갈 것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 일환으로 ICL(취업후상환학자금제도), 입학사정관제, 대학등록금 등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 5회차 대학 총장 아카데미에서는 '사립대학의 재정 지원', '지방대학 육성', '대학자율화', '대학교육과정 개편' 등에 관한 대학 의견이 개진되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이에 교과부 장관은 "정부가 준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대학은 앞으로 전체 인구 변화를 대비해서 슬림화하는 생각을 해둬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학특성화를 각 대학마다 준비해야 할 것이라" 답변했다. 더불어 "정부는 대학 스스로 변화에 적응하고 생존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 역설하였다.



12월 18일 6회차 대학 총장 아카데미에서는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을 모시고 <대학의 국가브랜드 창출>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날 어윤대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대외신뢰도 및 국가브랜드를 제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고 통합적 이미지로 종합적, 체계적 전략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에 대학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며, 국가 브랜드링에 대학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어윤대 위원장이 제시한 대학 브랜드링의 방안은 크게 4가지로, 첫째, 외국어 비중을 강화하고 학과를 조정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시장의 수요에 맞게 특화된 Universal한 교육을 해야 하고, 셋째, 정부는 대학 규제를 완화하고 대학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외국 학생 유치를 위한 장학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대학 총장 아카데미 2학기는 2010년 3월 12일 이원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특강으로 시작하여, 2010년 5월 21일까지 총 6회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히 2학기에는 2010년 3월 27일(토)은 정규 강의와 별도로 인성교육의 현장, 창덕궁 답사 일정이 있다. ■

필 / 자 / 소 / 개

김수경

숙명여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숙명여자대학교 여성HRD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을 거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학습센터 행정교수를 역임하였다. 연구논문으로는 "대학특성화 재정지원 전략과 효과성 분석-수도권대학특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사람대학 적립금 규모의 적정성 분석",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등록금 납부제도 개선효과 분석" 등이 있으며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연구부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